

간호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그릿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김조현^{1,*} · 김예진¹ · 박서연¹ · 박예빈¹ · 봉민지¹
박서연¹ · 소 윤¹ · 심예은¹ · 이진광¹ · 한은경^{2,†}

¹을지대학교 간호대학(성남), 학부생

²을지대학교 간호대학(성남), 부교수

(2023년 11월 23일 접수: 2023년 12월 28일 수정: 2023년 12월 29일 채택)

The Effects of Five Factors of Personality and Grit on Academic Burnout in Nursing Students

Johyeon Kim^{1,*} · Yejin Kim¹ · Seoyeon Park¹ · Yebin Park¹ · Minji Bong¹
Seoyeon Bak¹ · Yoon So¹ · Yeeun Shim¹ · Jinkwang Lee¹ · Eun-Kyoung Han^{2,†}

¹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Undergraduate Students

²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Received November 23, 2023; Revised December 28, 2023; Accepted December 29, 2023)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그릿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S시 소재 E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85명으로 2023년 4월 11일부터 2023년 6월 13일까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업소진은 그릿($r=-.425, p<.001$), 친화성 성격($r=-.330, p<.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신경증 성격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84, p<.001$).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에 두 가지 성격 요인(신경증, 친화성), 전공만족도, 그릿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격 5 요인을 활용하여 학업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법 개발과 전공만족도와 그릿을 높이고 학업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성격 5요인, 그릿, 학업소진, 전공만족도, 간호대학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identify the five factors of personality and grit on academic burnout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85 nursing college students attending the department of nursing located in S cit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 questionnaire from April 11 to June 13.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9.0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he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result of this study, academic burnout had a

[†]Corresponding author

(E-mail:haahaa21@hanmail.net)

negative correlation with grit($r=-.425, p<.001$), agreeableness($r=-.330, p<.001$). On the other hand, i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neuroticism ($r=.384, p<.001$). Two personality factors(neuroticism, agreeableness), major satisfaction, and grit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cademic burnout in nursing stu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unseling methods that can prevent academic burnout by utilizing the five personality factors of nursing students and to develop programs that can increase major satisfaction and grit and reduce academic burnout.

Keywords : Five personality factors, Grit, Academic burnout,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본인의 전공 탐색과 진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간호대학생은 다른 학과에 비해 학습량이 방대하며 임상실습과 국가고시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한다[1]. 특히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은 낮은 병원환경과 환자와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어려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대처 부족 등으로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2].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전공 학업에 대한 무능감을 느끼면서 학업소진이 나타난다[3]. 학업소진은 많은 학업량과 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학업에 대한 심리적 피로감, 정서적 고갈 및 학업 성취감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4].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업소진은 학업 몰입도를 방해하며 간호사 직업에 대한 준비도가 낮아질 뿐 아니라 졸업 후에는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낮아지고 이직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이처럼 학업소진은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 뿐 아니라 미래에 간호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원인을 파악하여 소진을 예방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성격은 인지, 감정, 사고, 태도, 행동 등과 관련된 특성으로 개인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Maslach와 Jackson[6]은 물리적인 환경 구조보다는 성격과 같은 내적 특성이 소진과 더 높은 관련이 있으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Jacobs와 Dodd[7]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부정적인 기질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격이 학생들의 학업소

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성격과 관련된 이론 중 심리학자들의 큰 지지를 받는 모델은 성격 5모델이며 5개 요인은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으로 분류하였다[8]. 외향성은 사교적이며 적극적인 성격, 친화성은 협동적이며 친절함 성격, 성실성은 신뢰감과 노력하는 성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신경성은 부정적 사고로 표현하였다. 개방성은 타인에게 관대하며 상상력이 풍부한 성격이라고 하였다[8].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성격 5요인이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9]. 구체적으로 신경성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친화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정유진과 고진강의 연구[10]에 따르면 신경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의 대처방식이 소극적으로 나타났다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도 친화성에 비해 신경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5요인 성격특성과 학업 소진과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에서는 성실성과 외향성의 성격특성에서 학업소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처럼 성격 5요인과 학업소진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성격 5요인과 학업소진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며 간호대학생으로 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성격 5요인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최근 긍정적인 심리자원인 그릿(Grit)이 주목받고 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과정에서 직면하는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를 의미한다[12]. 간호대학생에게 그릿은 시험이나 과중한 과제, 임상실습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간호사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

가도록 하는 역량으로 그것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학업 과정을 완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고등학생에서 그것은 학업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그것이 부족할수록 학업소진 증상을 높게 경험한다고 하였다[14]. 간호대학생은 미래에 간호사가 될 인재이므로 간호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것과 학업소진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소진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로 성취감이 저하되고 정서적 자원이 고갈되는 등의 심리적 증상이다[15]. 소진은 주로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업소진 연구가 조사되고 있다. 학업이 과도해지면서 학생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의욕저하와 절망감, 피곤감, 탈진증상을 나타내며 마침내 학업에 있어 좌절감과 자신감 저하등을 보이는 정서적, 신체적 고갈 상태를 학업소진이라고 정의하였다[4].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소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16], 전공만족도가 높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학업소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 이처럼 학업소진은 학업중단과 같은 학교 부적응, 우울과 불안 증상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을 탐색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에 대한 연구는 회복탄력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연구[3], 그것,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의 학업소진 영향에 대한 연구[16]는 찾아볼 수 있으나 성격 5요인과 그것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성격 5요인, 그것 및 학업소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성격 5요인, 그것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성격 5요인, 그것 및 학업소진의 정도를 확인하고,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학

업소진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성격 5요인, 그것 및 학업소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 5요인, 그것 및 학업소진 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성격 5요인, 그것 및 학업소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격 5요인, 그것 및 학업소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S시에 소재한 E 대학교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대상자로 연구목적에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한 자이다. 연구대상자 수의 선정근거는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요인 14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22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3]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적용한 근거 및 탈락자를 고려하여 300명의 간호대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설문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한 총 285명을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성격 5요인 (Big Five Inventory)

성격 5요인은 Kim 등[17]이 수정하고 변안한 한국어 성격 5요인(Big Five Inventory)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개방성, 성실성, 신경성, 외향성, 친화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3개 문항씩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격 5요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17]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1$ 이었다.

2.3.2. 그릿(Grit)

그릿은 Duckworth 등[12]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Grit-O)을 Ha 등[18]이 수정하고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지속적 관심과 꾸준한 노력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4개 문항씩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릿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 등[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5$ 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9$ 이었다.

2.3.3. 학업소진(Academic Burnout)

학업소진은 Schaufeli 등[15]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I-SS)를 Yoo와 Shin[19]이 한국 대학생에게 맞게 변안한 학업소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소진, 냉소주의, 효능감 감소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5개 문항씩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업소진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와 Shin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8$ 이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4월 11일부터 2023년 6월 13일까지 1~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가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설문 내용, 자발적 동의와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도중에 연구를 거부할 권리 및 중단,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메일주소를 제공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은 평균 10~20분으로, 설문이 끝난 즉시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설문에 응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관련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 후 파기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2.5.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WIN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인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성격 5요인, 그릿 및 학업소진 정도를 서술통계인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소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성격 5요인, 그릿, 학업소진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285명으로 남학생이 49명(17.2%), 여학생이 236명(82.8%)이었으며, 1학년 73명(25.6%), 2학년 77명(27.0%), 3학년 71명(24.9%), 4학년 64명(22.5%)이었다. 종교 있음이 94명(33.0%), 종교 없음이 191명(67.0%)으로,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더 많았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는 183명(64.2%)이며, 스트레스 관리법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201명(70.5%)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 144명(50.5%), 보통 73명(25.6%), 매우 만족 48명(16.8%), 불만족 20명(7.1%) 순이었다. 건강상태는 만족 104명(36.5%), 보통 92명(32.3%), 불만족 64명(22.5%), 매우 만족 25명(8.8%) 순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및 학업소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소진은 전공만족도 ($F=65.68, p<.001$), 주관적 건강상태($F=9.6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전공만족도는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순으로 학업소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만족, 매우 만족 그룹'보다 '불만족 그룹'에서 학업소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8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cademic Burnout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49(17.2)	2.31±0.47	-1.04 (.973)
	Female	236(82.8)	2.39±0.45	
Grade	1 grade	73(25.6)	2.36±0.40	0.83 (.478)
	2 grade	77(27.0)	2.33±0.48	
	3 grade	71(24.9)	2.37±0.47	
	4 grade	64(22.5)	2.45±0.46	
Religion	Yes	94(33.0)	2.28±0.44	-2.46 (.782)
	No	191(67.0)	2.42±0.46	
Residence with Family	Yes	183(64.2)	2.38±0.44	0.20 (.381)
	No	102(35.8)	2.37±0.48	
Major satisfaction	Unsatisfied ^a	20(7.1)	3.07±0.40	65.68 ^{***} (<.001) a>b>c>d
	Moderate ^b	73(25.6)	2.65±0.33	
	Satisfied ^c	144(50.5)	2.27±0.35	
	Very satisfied ^d	48(16.8)	1.99±0.37	
Subjective health status	Unsatisfied ^a	64(22.5)	2.53±0.44	9.61 ^{***} (<.001) b>c>d
	Moderate ^b	92(32.3)	2.47±0.40	
	Satisfied ^c	104(36.5)	2.27±0.40	
	Very satisfied ^d	25(8.8)	2.10±0.66	
Stress coping	Yes	201(70.5)	2.30±0.45	-4.49 (.647)
	No	84(29.5)	2.56±0.43	

* $p<.05$, ** $p<.01$, *** $p<.001$

3.3. 대상자의 성격 5요인, 그릿 및 학업소진 정도

대상자의 성격 5요인 문항 평균은 5점 만점에 3.21 ± 0.45 점으로, 친화성 3.65 ± 0.68 점, 성실성 3.58 ± 0.76 점, 외향성 3.06 ± 0.86 점, 개방성 2.98 ± 1.05 점, 신경성 2.78 ± 0.95 점 순이었다. 그릿 문항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2.99 ± 0.68 점으로, 지속적인 관심 2.64 ± 0.84 점, 꾸준한 노력 3.33 ± 0.78 점으로 꾸준한 노력이 더 높았다. 학업소진은 4점 만점에 평균 2.38 ± 0.45 점이었다<Table 2>.

3.4. 대상자의 성격 5요인, 그릿, 학업소진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친화성은 외향성($r=.19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성실성은 친화성($r=.23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성은 외향성($r=.323$, $p<.001$), 친화성($r=.251$, $p<.001$), 성실성($r=.275$,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은 친화성($r=.259$, $p<.001$), 성실성($r=.504$,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업소진은 신경성($r=.384$,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외향성($r=-.191$, $p<.001$), 친화성($r=-.330$, $p<.001$), 성실성($r=-.337$, $p<.001$), 개방성($r=-.224$, $p<.001$), 그릿($r=-.425$,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2. The level of big 5 personality, grit, and academic burnout (N=285)

Variables	M±SD	Min~Max
Big 5 Personality	3.21±0.45	1.00~5.00
Extroversion	3.06±0.86	1.67~5.00
Agreeableness	3.65±0.68	1.33~5.00
Conscientiousness	3.58±0.76	1.00~5.00
Neuroticism	2.78±0.95	1.00~5.00
Openness to Experience	2.98±1.05	1.00~5.00
Grit	2.99±0.68	1.00~5.00
Consistency of Interest	2.64±0.84	1.00~5.00
Perseverance of Effort	3.33±0.78	1.00~5.00
Academic Burnout	2.38±0.45	1.00~3.67

Table 3. Relationship among big 5 personality, grit, and academic burnout (N=285)

Variables	1	2	3	4	5	6	7
	r (p)						
1. Extraversion	1						
2. Agreeableness	.192*** (<.001)	1					
3. Conscientiousness	.167** (.005)	.238*** (<.001)	1				
4. Neuroticism	-.094 (.115)	-.102 (.084)	-.151* (.010)	1			
5. Openness to Experience	.323*** (<.001)	.251*** (<.001)	.275*** (<.001)	-.108 (.069)	1		
6. Grit	.105 (.077)	.259*** (<.001)	.504*** (<.001)	-.156** (.009)	.117* (.049)	1	
7. Academic Burnout	-.191*** (<.001)	-.330*** (<.001)	-.337*** (<.001)	.384*** (<.001)	-.224*** (<.001)	-.425*** (<.001)	1

* $p < .05$, ** $p < .01$, *** $p < .001$

3.5. 대상자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격 5요인, 그릿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전공만족도와 건강상태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기준에 따라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값(tolerance), 분산팽창요인(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과 잔차값(Durbin-Watson)을 산출하였다. 학업소진

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로 검정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는 1.939로 2에 가까워 오차항의 독립성 및 자기 상관에 문제가 없었다. 공차한계(tolerance) 범위는 .70~.87으로 0.1 이상이었고, VIF 지수도 1.15~1.46으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투입방식을 단계적 선택법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burnout (N=28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60.61	2.55		23.78	<.001
Satisfaction with major	-3.75	0.34	-.48	-10.94	<.001
Physical health condition	-0.41	0.30	-.06	-1.35	.178
Extraversion	-0.02	0.12	-.01	-0.20	.841
Agreeableness	-0.47	0.14	-.14	-3.29	<.001
Conscientiousness	-0.10	0.15	-.03	-0.66	.513
Neuroticism	0.48	0.10	.20	4.65	<.001
Openness to Experience	-0.17	0.09	-.08	-1.72	.085
Grit	-0.24	0.06	-.19	-3.93	<.001
$R^2 = .56, \text{Adj. } R^2 = .54, F=43.37, p<.001$					

전공만족도($\beta = -.48, p < .001$), 신경성($\beta = .20, p < .001$), 그릿($\beta = -.19, p < .001$), 친화성($\beta = -.14, p < .001$)의 순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학업소진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4.0%였다(Table 4).

3.6.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격 5요인, 그릿, 학업소진의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 간 관련성 및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업소진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격 5요인의 하위요인 중 친화성이 5점 만점에 3.65점, 성실성은 3.58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신경성은 2.7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성격 5요인을 측정된 Kang[20]의 연구에서도 친화성이 5점 만점에 3.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경성이 3.1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Kim[9]의 연구에서도 친화성, 성실성이 각각 5점 만점에 3.60점으로 높았으며 신경성이 2.7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교내 및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 동료, 환자 및 가족, 간호사, 타과 의료진 등과 같은 다양한 사람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친화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성실성은 과중한 학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호대학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실수 없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경향으로 성실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성격은 개인의 성향으로 개인마다 다르게 발현되기에, 같은 상황에서도 개개인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격 특성에 영향을 주는 내·외적 변수를 추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그릿은 5점 만점에 2.99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고,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을 측정된 진중임과 Kim[21]의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 3.02점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그릿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꾸준한 노력’은 3.33점, ‘지속적 관심’은 2.64점으로 나타나 꾸준한 노력이 지속적 관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Lee 등[13]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된다. 이는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 관심’의 특성인 그릿을 고려해 볼 때 간호대학생들은 목표를 향하여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Jung과 Jeong[22]은 전공만족도가 그릿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라고 하였으며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한다[23].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그릿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학 전공의 만족도 향상과 대학 차원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평점 2.38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동일한 도구로 대학생들의 학업소진 정도를 측정된 Kim[24] 연구의 2.38점과 일치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 병행,

많은 과제와 시험이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감을 경험하게 하여 학업 수행에 있어 자신감과 성취감을 저하시키고 학업 스트레스가 과중되어 소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소진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전공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학업소진이 3.07점으로 가장 높았다. Whang[25]은 취업률이 높은 간호학과에 입학했다는 사실로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만족도'는 높았으나 실제 수행해야 하는 간호학과 전공교육 과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교과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전공만족도는 비교과 활동을 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았으므로[25] 비교과 활동을 통해 간호학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학생 지도 및 상담시에 다양한 비교과활동을 추천하고 안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 가운데 학년 간에 학업소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5]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처음 시작하는 간호대학생 3학년에서 1, 4학년에 비해 학업소진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 3학년의 경우 임상실습을 시작하지 않고 이론 수업만 하고 있던 시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이 상황과 학년, 임상실습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성격 5요인 및 그릿과 학업소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학업소진은 신경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Kim[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타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경성이 학업소진과 양의 상관관계, 개방성과 친화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Na 등[27]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소진과 성격 5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학업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그릿은 학업소진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6]와 유사하다. 이는 학업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꾸준한 노력으로 학업적 성취를 달성하면 학업소진이 감소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신경성, 그릿, 친화성 성격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학업소진에 대한 총 설명력은 55.0%였다. 학업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로 이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25]. 전공만족도는 전공교과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욕구 수준이 충족되고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 및 개인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전공만족도는 충실한 학업 수행과 성적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져다주기 때문에[28] 학업소진을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격 5요인 중에서 신경성이 학업소진에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민감하여, 긴장 및 피로감을 쉽게 느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29] 과도한 학업성취 압력으로 인한 정서적 고갈, 낮은 학업 성취감 등을 주된 증상이 학업소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그릿이 학업소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그릿을 높이면 학업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Kim[30]의 연구 또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릿은 자기조절을 위한 내적인 힘이기에 때문에[12] 학업소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릿이 완충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즉, 그릿은 학업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은 감소시키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학업 자신감과 효능감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직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과 학업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하기 위한 학업 효능감이 증가될 스트레스가 소진으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릿과 학업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기에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친화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29]로서 친화성이 높은 학생들은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가 낮아[31] 학업소진을 적게 경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성격 5요인을 활용하여 학업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법 개발과 전공만족도와 그릿을 높이고 학업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4.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격 5요인, 그릿 및 학업소진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소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전공만족도, 신경성, 그릿 및 친화성이 학업소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은 많은 학습량과 잦은 시험, 과도한 과제와 임상실습의 어려움 속에서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릿을 높이고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강점 특성의 발견 및 향상을 위해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부족한 특성은 보완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차원의 제도적 노력과 학과 차원의 상담, 지도,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만을 임의로 표집하여 설문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업소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의 일반화는 신중해야 한다. 추후 체계적인 표본 추출을 통한 반복연구로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업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Y. R. Yeom, H. J. Park,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Academic Resilience and Academic Burnout on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4, No.3 pp. 63-73, (2020).
2. J. G. Kim, J. H. Yoo, E. Y. Cheon, "Relationship among Incivility, Burnout, Coping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 pp. 316-324, (2017).
3. E. H. Lee, "Effect of Resilience on Academic Burnou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6 pp. 178-187, (2019).
4. H. Y. Gao, "The Differences in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Failure Tolerance between Motivation Typ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3, No.1 pp. 125-147, (2012).
5. M. J. An, "Comparison of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Burnout, Stress, and Social Support by Grade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30, No.2 pp. 113-123, (2017).
6. C. Maslach, S. E. Jackson,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Vol.2, No.2 pp. 99-113, (1981).
7. S. R. Jacobs, D. K. Dodd, "Student Burnout as a Function of Personality, Social Support, and Workload",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44, No.3 pp. 291-303, (2003).
8. L. R. Goldberg,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9, No.6 pp. 1216-1229, (1990).
9. S. J. Kim, *An association of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of Nursing Students on Academic Stress, Depression and Major Satisfac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master's thesis, (2023).
10. Y. J. Jeong, C. K. Koh, "Effects of Personality and Coping Behavi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4, No.4 pp. 296-302, (2016).
11. L. G. Park, S. M. Lee, B. Y. Choi, J. Y. Le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Academic Burnout",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4, No.1 pp. 81-93, (2010).
12.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 Matthews,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psychology*, Vol.92, No.6 pp. 1087, (2007).
13. J. Y. Lee, J. E. Oh, W. J. Lee, Y. J. Hur, "A concept Analysis of Nurses' Grit" , *Crisisonomy*, Vol.15, No.5 pp. 35-48, (2019).
 14. M. E. Kim, S. H. Lee, "The Moderating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nd Academic Burnout of a Child Who is a High School Stud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30, No.4 pp. 393-414, (2023).
 15. W. B. Schaufeli, I. M. Martinez, A. M. Pinto, M. Salanova, A. B. Bakker,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3, No.5 pp. 464-481, (2002).
 16. S. M. Lim, Y. R. Yeom, "Factors Influencing Burnout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12 pp. 39-48, (2021).
 17. J. H. Kim, B. H. Kim, M. S. Ha,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32, No.1 pp. 47-65, (2011).
 18. H. S. Ha, H. J. Lim, M. H. Hwng, "The Group Difference of Grit and Self-control and its Relations to School Maladjustment, Academic Achievement, and Predictability of Personality",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11, No.3 pp. 145-166, (2015).
 19. G. S. Yoo, D. W. Shin,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on Academic Burnout and Employment Stres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6 pp. 3849-3869, (2013).
 20. M. K. Kang, "Effect of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on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 pp. 389-406, (2021).
 21. J. I. Jin, N. C. Kim, "Grit, Academic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3, No.2 pp. 175-183, (2017).
 22. M. R. Jung, E. Jeong,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6 pp. 414-423, (2019).
 23. H. E. Kim, N. Lee, "The Stress Coping Method according to the Type of Grit Cluster of College Student and Differences i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Vol.13, No.2 pp. 375-390, (2021).
 24. M. J. Kim, *Effects of Academic Burnout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the Quality of Sleep in Nursing Students*,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master's thesis, (2020).
 25. S. A. Whang,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ollege Student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Vol.9, No.2 pp. 73-85, (2021).
 26. K. Y. Kim,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Big 5 Personality Traits on Academic Burn-Out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master's thesis, (2022).
 27. E. J. Na, S. Y. Kwon, B. H. Gong, Y. K.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 of Personality Traits, Academic Burnout, and Career Stres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Counseling Majo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8, No.6 pp. 281-301, (2017).
 28. H. S. Song, S. H. Lim, "Influenc of Major

-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Carri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4 pp. 21-36, (2017).
29. H. W. Lee, J. H. Tak, M. R. Lee, “The Difference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Cluster Types based on the Grit”,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7, No.3 pp. 249-268, (2017).
30. K. T.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set and Academic Burnou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4, No.2 pp. 225-234, (2019).
31. M. J. Lee, G. H. Kim, J. W. Lee, S. M. Lee,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Failure Tolerance on Academic Burnout Among College Students :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Interpersonal Stre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2 pp. 175-185, (2020).